

산에 오르는 여러 길 안내한 책들

산행안내서·사진집·보고서 등 다양하게 소개

산악도서는 일반서점에서 볼 수 있는 산행안내서, 등산문학서, 사진집, 그리고 전문인들이 주로 찾은 산악관련 전문서, 화보 및 보고서로 분류되는데, 등산문학서 중심이던 것에서 지금은 산행안내서나 사진집으로 등산로를 확장하고 있다.

사진·지도를 곁들인 독특한 정보서들

세계적인 등반가 조지 힌치의 “등산은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방법”이라는 말을 서두에 꺼내면서 시작되는 《등산 시작》(평화출판사)은 등산의 알파벳으로 읽힐 만한 책.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다루고 있어 독자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배낭 꾸리기, 산에서 먹을 것들, 옷차림, 취사구, 지도는 물론 등반용구, 바위타기, 눈과 얼음에서 대처하는 법, 스키 등산 등을 세세히 소개하고 있다.

역사와 공간이라는 두 열개로 산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을 가능케 하는 책들도 있다.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중 산 이름을 제목으로 붙인 책들이 그것이다. 《북한산》《지리산》《한라산》《설악산》《속리산》《오대산》《계룡산》《백두산》에 이어서 최근에는 조석필씨가 글을 쓰고, 심병우씨가 사진을 찍은 《월출산》이 출간됐다. 산의 자연지리, 인문지리, 명승, 등반안내, 산 감상법, 참고문헌과 함께 풍부한 산악 사진을 실었다. 저자는 주지봉 정수리에서 월출산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거나, 천황사에서 도갑사에 이르는 중주 코스를 택한다면 산의 노른 자위를 맞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쉽게 찾는 우리산 - 지리산》, 《서울의 기암괴석》은 안내서이면서도 주제가 있는 산행을 강조한다. 임소혁씨가 펴낸 《쉽게 찾는 우리산-지리산》(현암사)은 지리산의 사계절 모습을 폭넓게 담고 등산로와 교통정보를 눈에 거스르지 않게 편집했으며 주머니에 휴대하기도 편하게 만들어졌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근무하는 장석민씨가 펴낸 《서울의 기암괴석》(윤송현출판사)은 북한산·관악산·수락산 등에서 찍은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모양의 바위사진 75컷과 이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소개하는 기암산행 안내서다. 번뇌하는 얼굴바위, 고릴라바위, 선글라스바위 등 사진도 재미있거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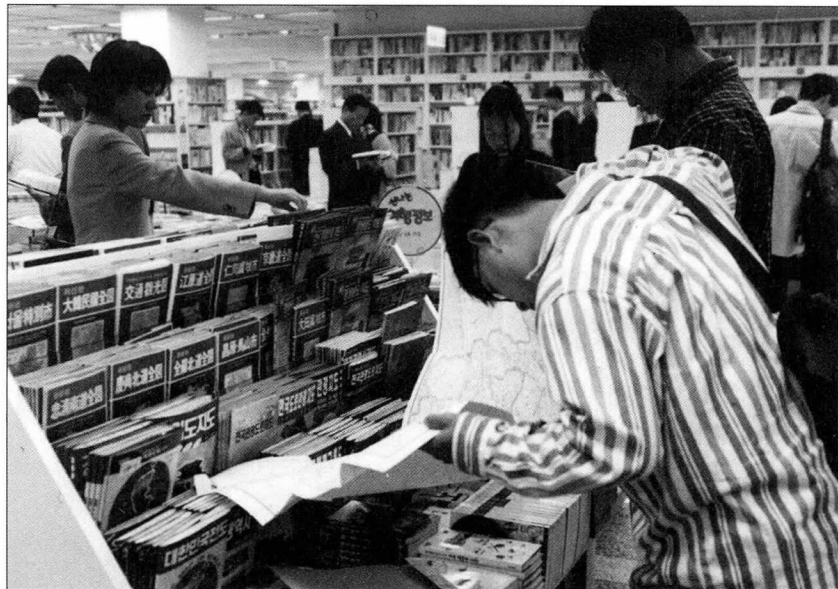
산악 관련도서는
산행안내와 보고서,
등정기와 화보, 사진집 등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최근에는
등산 안내서이면서 인문적인
내용을 함께 담거나
사진집이면서 등산 코스와
교통·숙박시설의 정보도
다른 특징 있는 안내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걸 발견하고 촬영한 이야기도 재미있다. 특징있는 등반 안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월간 《사람과 산》(산악문화)이 찾은 120명산 시리즈와, 《한국 100 명산 등산지도집》이 그중 탁월하다. 120명산 시리즈는 산의 위치도, 안내도·등산코스·교통·숙박시설은 물론 산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94년 출간돼 6쇄를 돌파할 정도로 아직도 찾는 이가 많다.

이 시리즈가 가진 가장 큰 미덕은 풍부한 사진이다. 또 산행시간도 각 코스의 구간별 시간까지 세밀하게 실려서 적어놓았다. 예를 들어 태백산의 경우, 당골·백단사·유인사를 들머리로 정장을 다녀오는데 4~5시간이면 충분하데 이중 백단사를 들머리로 오르는 코스가 가장 빠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백단사부터 정장까지 이르는 길을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마다 등반 소요시간을 적어놓았다.

단순한 지도집인데도 독특한 편집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한국 100명산 등산 지도집》(사람과산)은 일반 지도집과는 다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제본에서 나타난다. 각 지도를 낱장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바인더 제본과 휴대용 지도 케이스를 마련, 산에 갈 때마다 지도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글이 마치 사족으로 보이는 화보 위주의 책들은 산악정보서라기보다는 ‘산’ 감상서에 가까운데, 최근 그 출판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사진가 오무라 고이치로의



본격적인 등산의 계절이 무르익어지면서 서점가 '산악도서' 코너에 독자들의 발길이 부쩍 늘고 있다.

사진집 《하늘에서 본 히말라야 파노라마》(평화출판사)는 히말라야의 이곳저곳을 공중촬영해 보여준다. 종래의 산사진집들이 산 정상이나 능선 등 촬영 위치가 땅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히말라야 정경을 새롭게 접할 수 있다.

한눈에 펼쳐보인 산의 얼굴들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관한 책은 여럿이다. 그중에서 사진집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눈길을 끄는데, 안승일의 《아직은 갈 수 없는 산 백두산》(산악문화)은 더욱 볼 만하다. 특히 김승일씨가 백두산 사진을 찍으면서 기록한 일기들을 관련된 부분만 따로 보여주는데, 그 글을 읽는 맛도 별다르다. 감성적인 글과 함께 백두산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장비 또는 특별한 기술, 주의할 점도 일기의 중간중간에 섞여 있다. 백두산의 역사, 안내도, 지질과 지형 등도 알려주고는 있으나 그리 큰 정보는 되지 못한다.

도서출판 하날오름에서 펴낸 《삼시간에 붙잡힌 한라산의 황홀》은 사진작가 김영갑씨의 사진과 원로시인 박희진씨의 시와 에세이로 어우러져 있다. 사진집, 혹은 시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라산과 제주의 이름다움을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산을 자연생태계의 현장으로 보고 있는 책들은 대개 도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표적인 책이 교학사의 《지리산의 꽃》과 《한라산의 꽃》. 최근에는 《설악산의 꽃》이 또

보태어져 산의 꽃에 관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등산문학서도 계속 출간되고 있다. 《구름 위에 띄운 엽서》(김원식, 사람과 산)는 저자가 산행을 하며 적은 시들로, 문학적이거나기보다는 산 사나이의 담담한 감정을 담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더 진솔한 인간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 또 《남도명산 20봉에 오르며 문화유산도 들러본다》(박옥규, 문경출판사)는 산의 문화유적을 골고루 찾아내 마치 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답사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판이 거의 없어서 관심있는 독자가 아니라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책이다.

백두대간에 관한 책으로는 《71일간의 백두대간》(김춘일, 수문출판사)과, 《아들아 세상을 품어라》(장홍호, 뜨인돌)가 읽을 만하다. 《71일간의 백두대간》은 단독종주기인데, 앞으로의 종주자를 위해 구간별로 상세한 정보와 52장의 구간 개념도를 실었다. 《아들아...》는 구두담이 아버지와 14살의 아들이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2년 2개월에 걸쳐 해낸 종주기다.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이 산에서 꽃피는 광경을 읽어낼 수 있다.

(이성수)